

도로 위 명품이 선사하는 특별한 감성



강력한 지중해의 북동풍

레이싱 DNA 계승...마세라티 SUV ‘그레칼레’ 바람 분다

꾸미지 않아도 품격있는 자태
스포티함과 우아함의 균형
스포츠카 MC20 정체성 공유
최고시속 285km·제로백 3.8초
GT·모테나 등 3트림 출시

뒤돌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누구나 쳐다보는 특별한. 굳이 화려하게 꾸미지 않아도 품격이 느껴지는 자동차. 이태리 신사복처럼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정성들여 제작하는 시트커버와 전설적인 성악가 루치아노 파바로티도 반하게 만들었을 정도의 완벽한 배기음. 그리고 포세이돈을 상징하는 삼지창 모양의 엠블럼.

이탈리아 특유의 고급스러운 감성으로 사랑을 받아온 109년 역사의 하이퍼포먼스 럭셔리 브랜드 ‘마세라티’ 얘기다.

‘도로 위의 명품’, ‘자동차계의 명품’이라 불리는 마세라티가 지난해 11월 국내에 첫 선을 보인 브랜드 두 번째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 ‘그레칼레’ (Grecale)의 고객 인도를 시작했다. ‘강력한 지중해의 북동풍’이라는 뜻을 지닌 ‘그레칼레’는 마세라티가 무려 7년 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신규 모델이다.

그레칼레는 마세라티의 플래그십슈퍼카 ‘MC20’의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다. 독일 차들과 다른 유려한 곡선의 매력에 돋보이는 우아한 바디 라인과 레이싱 DNA를 계승한 뛰어난 퍼포먼스를 자랑한다.

마세라티와 명품 사운드의 만남도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레칼레에 탑재된 스피커는 이탈리아의 명품 사운드전문 업체 ‘소너스파베르’ (Sonus faber) 제품이다.

이달 본격적인 국내 출고를 시작한 그레칼레는 상반기 초도 물량 완판을 목전에 뒀다. 브랜드 특유의 고품스러운 매력과 희소성이 구매 욕구를 자극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대의 흐름에 맞춘 상징적인 모델 ‘그레칼레’=그레칼레는 일상의 경험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SUV 모델로, 스포티함과 우아함 사이의 적절한 균형과 함께 마세라티의 열정과 혁신, 시대를 초월한 디자인이 조화를 이뤘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무엇보다 그레칼레는 브랜드 정체성을 재정의하는 상징적인 모델이다. 휠베이스(2901mm)는 르반데보다 짧지만 경쟁모델인 포르쉐의 카에엔보다는 길어 상대적으로 넓은 실내 공간을 확보했다는 평가와, 낮은 전고로 무게 중심이 낮아 보여 스포티한 쿨페 실루엣이 부각된다는 평을 받고 있다.

SUV이지만 성능 면에서는 슈퍼 스포츠카로 분



‘자동차계의 명품’이라 불리는 마세라티가 브랜드 두 번째 SUV 모델인 ‘그레칼레’를 국내 공식 출시했다. ‘강력한 지중해의 북동풍’이라는 뜻을 지닌 그레칼레는 레이싱 DNA를 계승한 뛰어난 성능과 이탈리아의 명품 사운드전문 업체 ‘소너스파르’의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류되는 MC20의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는데, MC20과 같은 네튜노 엔진이 장착돼 530마력의 힘을 내는 ‘트로페오’를 중심으로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이 장착된 ‘GT’와 ‘모테나’까지 3트림으로 출시됐다. 트로페오 모델의 최고속도는 시속 285km로,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걸리는 시간인 제로백은 3.8초로 강력한 성능을 자랑한다.

무엇보다 동급 최고의 실내공간과 성능, 안전성이 돋보인다. 전장(4860mm)x전폭(1980mm)x전고(1660mm) 등 프리미엄 세단에서 SUV로 전환을 원하는 고객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차체 크기는 중간급이지만 실내공간은 동급 모델 대비 최강이라는 평을 얻는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마세라티 특유의 아날로그 감성으로 여겨졌던 내부 편의사양이 디지털화로 변화한 덕이다. 중앙 패널에서 버튼이 사라지고 12.3인치 센터 디스플레이와 8.8인치 컴포트 디스플레이는 터치로 조작이 가능해져 팔걸이 공간도 넓어졌다.

트렁크의 적재공간을 보면 플로어 아래 추가 적재함을 가지고 있으며, 트렁크에 있는 버튼으로 2

열을 폴딩해 공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했다. 트렁크의 용량은 535~570 L다.

◇브랜드 역사상 가장 혁신·미래지향적인 모델=마세라티 디자인의 핵심은 럭셔리함과 레이싱 헤리티지다. 현재까지 마세라티의 모든 모델들은 해당 테마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레칼레 또한 인테리어 디자인은 깔끔하고 모던하면서 감성적인 디자인 콘셉트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첨단 기술을 탑재했다.

실내에는 클래식 클러스터와 중앙의 새로운 12.3인치 패널, 추가 제어 기능이 포함된 8.8인치 컴포트 패널, 새로운 디지털시계 등, 최소 4개의 화면이 장착돼 있다. 중앙 패널에서 버튼이 사라지면 서 넓은 암레스트, 더블 버터플라이 도어가 달린 대형 수납 공간, 휴대전화 충전 패드를 배치할 공간이 확보됐다.

그레칼레는 마세라티 역사상 최초로 디지털 시계가 장착됐고, 한층 진화된 인터페이스가 자리 잡았다. 시간뿐 아니라 음성 명령을 받을 때마다 응답 신호도 표시할 수 있다.

마세라티는 ‘미니멀리즘’ 철학을 채택해 인테리어 디자인을 깔끔하게 꾸미면서도 대부분을 손가락

하나의 터치로 제어할 수 있는 첨단기술을 요소로 탑재했다.

차량의 실내 사운드 디자인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수행돼 다른 마세라티 모델과는 다른 일련의 웰컴 사운드가 추가됐다. 여기에는 안전벨트와 실내등은 물론, ADAS 시스템에 대한 특별한 알림음이 포함된다.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소너스파베르’ 사운드 시스템=마세라티는 기존 모델에는 하만카톤, 그리고 바위스&윌킨스 사운드 시스템을 사용했지만, 그레칼레에는 소너스파베르의 오디오 시스템을 적용했다.

이에 대해 마세라티 수석 디자이너 쿠엔틴 아모레는 “두 브랜드 모두 ‘이탈리아’라는 공통의 디자인 언어를 갖고 있는 것이 강점”이라고 강조했고, 아시아 퍼시픽(APAC) 대표인 기무라 다카유키는 “이탈리아의 감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했다.

이탈리아의 사운드 전문 업체인 소너스파베르가 설계 및 제작한 이 사운드 시스템은 두 가지 수준의 사용자 정의를 제공한다.

그 중 하이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은 특별한 사운드의 완전함과 심도를 위해 최대 1285W의 출력으로 21개의 스피커와 3D 사운드를 제공한다.

천연 소재와 독점적인 스피커 디자인은 실내 공간에 탁월하고 자연스러운 사운드를 제공, 중음역대 스피커 사이의 거리 및 시간 조율에 특히 주의의 기울여 특별한 ‘소너스파베르의 보이스(VoS)’ 톤을 만들어냈다고 마세라티는 설명했다.

서브우퍼 기술은 더 이상 트렁크에 감춰 있지 않고 개방된 공간에 배치돼 차량 내 공간과 결합, 성능과 공간을 최적화해준다.

진정한 소너스파베르의 자연스러운 사운드 경험은 45W 트위터 7개, 60W 중음역대 스피커 3개, 45W 서라운드 중음역대 스피커 2개, 100W 프론트 우퍼 2개, 60W 리어우퍼 2대, 45W 중음역대 스피커 4개, 200W 서브 우퍼1개로 총 21개의 스피커를 갖추고 있어(총출력 1285W) 몰입감이 우수해 탁월한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세라티 그레칼레의 판매가격은 9900만~1억 6900만원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전동 접이식 글라스 루프...이전에 없던 ‘MC20 첼로’

마세라티 컨버터블 슈퍼 스포츠카 국내 출시...공기역학적 설계 ‘가장 아름다운 스포츠카’ 평가

이탈리안 하이퍼포먼스 럭셔리카 마세라티의 컨버터블 슈퍼 스포츠카 ‘MC20 첼로’ <사진>가 이달 국내에 공식 출시된 이후 “이전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MC20 첼로’는 쿠페 모델인 ‘MC20’의 컨버터블 버전으로, 우아한 디자인과 강력한 퍼포먼스가 특징이다.

‘첼로(Cielo)’는 이탈리아어로 하늘을 뜻한다. 즉 ‘MC20 첼로’는 ‘하늘을 느낄 수 있는 컨버터블 모델’이라는 뜻이다.

‘움직이는 조각상’이라 불릴 만큼 공기역학적으로 정교하게 설계됐고, 우아한 디자인으로 ‘가장 아름다운 스포츠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레이싱카의 DNA가 이식된 ‘강력한 성능’을 함께 지닌 것도 특징이다. ‘MC20 첼로’는 컨

버터블 모델임에도 제로백 3초, 최고속도 320km/h의 성능을 발휘한다.

마세라티 자체 기술로 개발한 630마력의 신형 V6 3.0L 터보 엔진인 네튜노(Nettuno) 엔진이 장착됐으며, 100% 이탈리아 모데나에서 생산된다.

‘MC20 첼로’의 핵심은 바로 공기역학적 설계에 있다. 풍동실험실에서 360° 테스트를 거쳐 정교하고 혁신적인 공기역학적 효율성을 갖췄다.

‘이전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모델’이라 불리는 가장 큰 이유는 여타 컨버터블 모델들과 차별화되는 전동 접이식 글라스 루프에 있다.

MC20 첼로는 동급에서 유일하게 완전 접이식 글라스 루프가 기본으로 탑재됐다. 고분자 분산형 액정(PDLC)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글라스 윈도우는 중앙 디스플레이 버튼을 한 번 터치한 하면 투

명 또는 불투명한 상태로 즉시 전환된다.

내부 인테리어는 우아하면서도 스포티한 라인으로 마세라티만의 감성도 잘 드러낸다. 인테리어의 모든 요소는 고도로 간소화해 미니멀리즘을 잘 구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개의 10.25인치 스크린이 탑재됐으며 하나는 운전자용, 다른 하나는 마세라티 인텔리전트 어시스턴트(MIA)로 중앙 위치에서 운전자 쪽으로 살짝 향해 있다. 센터 터널은 불필요한 장식 없이 직관적으로 구성됐다.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 기어 버튼 2개, 파워 윈도 우 컨트롤, 인포테인먼트 볼륨 컨트롤, 무선 충전 패드를 갖춘 스마트폰 공간만 있으며 다른 모든 컨트롤 버튼은 스티어링 휠에 배치됐다.

모든 인테리어 요소는 기능적인 면을 우선으로



하면서 라이프스타일과 성능, 엔지니어링이 고루 어우러지도록 디자인된 게 특징이다.

인테리어의 카본 파이버는 특유의 스타일을 뽐내

며, 고객에게 맞춘 패브릭과 같은 느낌을 주도록 무광으로 처리됐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